

K-water Monthly Magazine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7

# 04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7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2026년 04월호

봄이 왔으니 가볍게 점프

# SPRING



## THEME 1

봄

4월호의 키워드는 'Spring'입니다.

여러분은 'Spring'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봄'입니다. '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말합니다.

꽃이 피고 마음이 설레는 찬란한 봄의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 THEME 2

도약

두 번째 테마는 '도약'입니다.

새가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갯짓하듯,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도약이 아닐까요.



# 봄



## 06. 월간 수토픽

물빛 소독으로 지역의  
내일을 밝히다

## 10. Gallery

꽃이 피어  
봄인 걸 알았어요

## 14. Theme Road

봄이 깃든  
'용인'

## 20. Travel Guide

가장 예쁜 봄날에 만나는  
꽃길 여행

## 22. Voice o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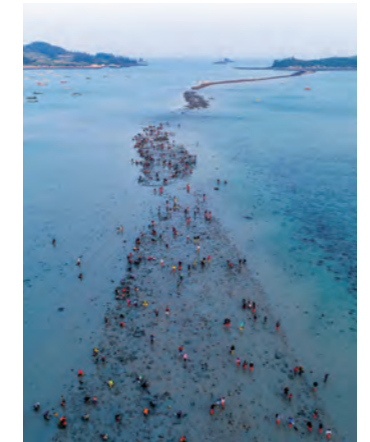
자연 그대로 피어나는 봄  
이택주 식물박사

## 26. The Kit

센스지수 올려주는  
봄 피크닉 아이템

## 28. Taste Note

딸기 덕분에 봄이  
더 달콤해



## 30. Theme Prism

Spring처럼  
설레는 순간들

## 32. Opinion

망설임 대신 한 걸음,  
도약은 그렇게 시작된다

## 34. Talk with

'단종 오빠'로 연예계 인생의 정점에 오르다  
배우 박지훈

## 38. 수타박스가 간다

물을 책임지는 예천의 수호자들  
예천수도지사

## 42. Water & Tech

공간의 한계를 넘어 자원 연계형으로  
진화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 46. Light on

AI로 혁신하는 K-물산업의 미래  
WATER KOREA 2026

## 48. Newsroom

## 52. Water Lounge

바닷길이 열리는 봄  
진도 신비의 바닷길

## 56. Monthly Issue

당신의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 58. Water Tales

황하를 다스리는 물의 신  
하백

## 60. #알고리즘

##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6년 4월 1일 | 통권 697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공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 물빛 소득으로 지역의 내일을 밝히다

## 임하댐 수상태양광, 주민과 함께 만든 재생에너지 현장

경북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한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다. 특히 댐 수면 위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며 '에너지 농사'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주민과 한뜻으로 이룬 108%의 성과

지난 3월 25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행정복지센터에는 22개 마을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장단 정기회의 이후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주민 소통 간담회가 이어졌다. 자료를 넘기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장들의 목소리로 회의실은 한층 분주해졌다.

이번 소통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사업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상업 운전 이후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계획 대비 약 108%의 발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설명에 이장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2025년 기준 발전량은 약 2만 4,971MWh로 목표치를 넘어섰으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REC 가중치 확보로 주민 수익 확대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향후 경관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댐 수면 위 태극기 형상의 태양광 설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계획이 소개되자, 회의실 곳곳에서 "관람 공간도 함께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장들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월간 수토픽

합천댐 수상태양광

충주댐 수상태양광



###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된 주민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2021년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안동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임동면·임하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추진돼 왔다. 임동면과 임하면 33개 마을 약 2,700가구 주민은 마을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한 지역상생형 사업모델이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줄이고 지역에는 경제적 활력을 더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임하호 수면에 조성된 47.2MW 규모의 발전설비는 2025년 7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연평균 6만 1,670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소 운영을 통해 20년간 총 222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주민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 막힌 송전망, '교차송전'으로 뚫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송전망 포화라는 한계를 '교차송전' 방식으로 극복했다. 당초 임하댐 일대는 전력계통의 여유가 없어 2031년 이후에야 발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 송전계통의 유휴 시간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낮에는 수상태양광, 밤에는 수력발전을 운영하는 교차송전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설비 증설 없이 발전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상업 운전 시점을 약 5년 앞당길 수 있었다.

관련 제도나 전례가 없던 상황에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교차송전 방식을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발전 수익을 조기에 창출하고 주민에게 약속한 수익 배분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기존 송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향후 물 에너지 사업 전반에 확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물 에너지가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물빛 소득'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을 비롯해 현재 합천댐, 소양강댐 등에 주민이익공유형 수상태양광사업을 운영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물 에너지 기반의 '물빛 소득' 모델을 전국 17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Mini-Interview

“자자체와 주민, 기반이 함께한 성공 방정식”



안동시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남우정 팀장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추가 설치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주민 반응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인데, 이 사업은 주민과 안동시, 기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대에서 참여로, 주민이 직접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중평1리장 임하댐 수상태양광 주민협의체  
권순철 위원장

사업 초기에는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수상 생태계나 어업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여러 기관과 안동시, 주민들이 수십 차례 함께 토론했고 의논하고 협상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발전 수익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  
최동훈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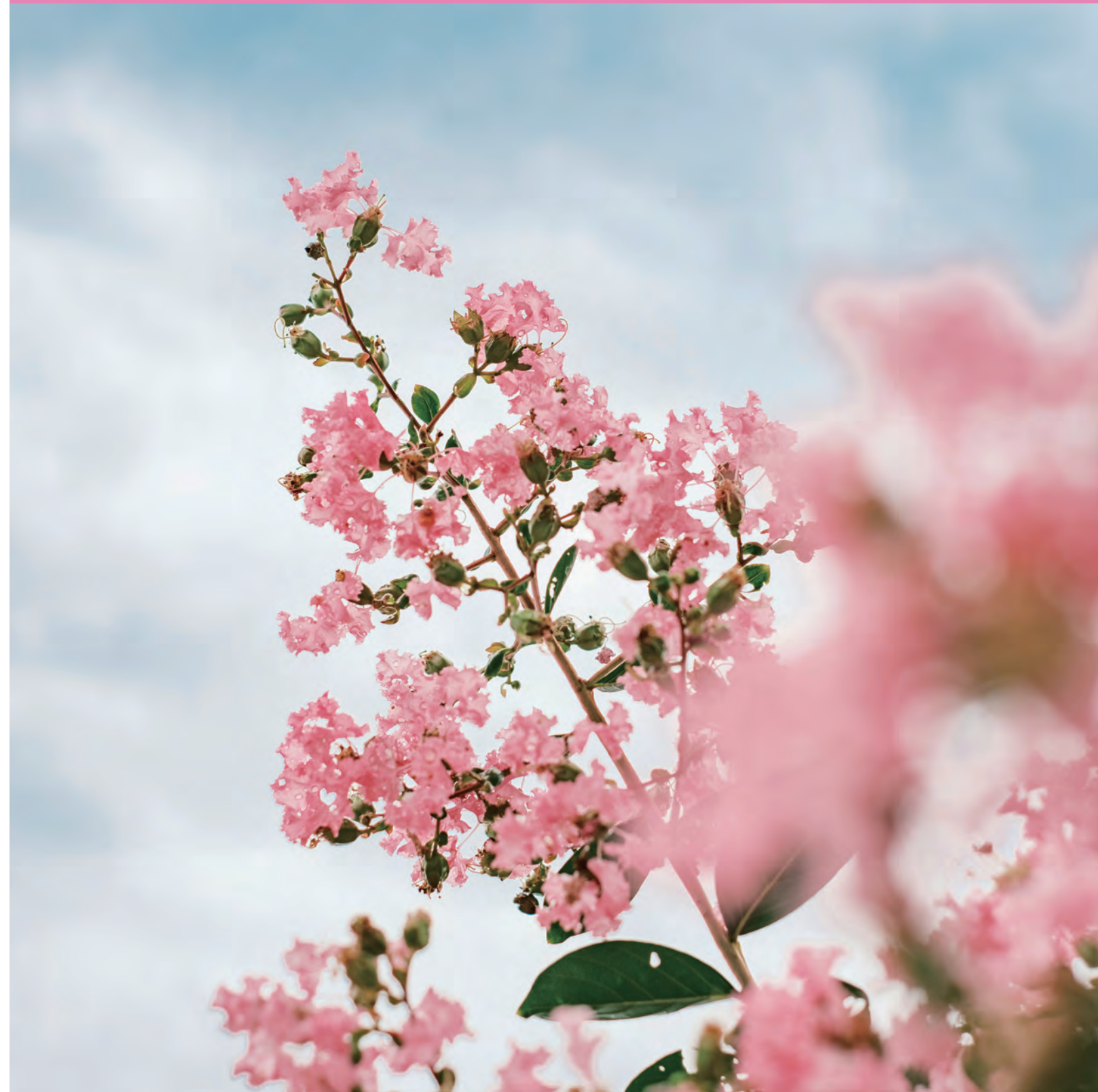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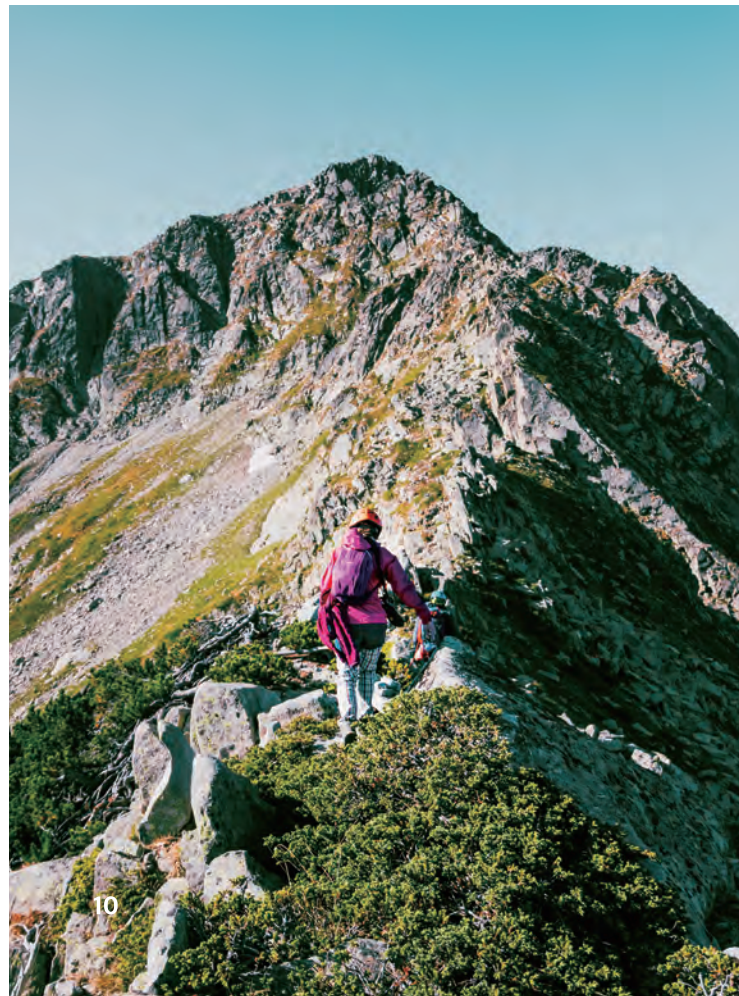
2025년 기준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수익 배분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모델로, 안동시와 지역주민이 사업의 파트너로 직접 참여해 긍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사업 표준이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괜히 마음이 설레는 날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당신을 믿으세요.  
봄꽃이 피어나듯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테니까요.

꽃이 피어 봄인 걸 알았어요



# SPRING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봄날을 만났나요?

## A Blooming Spring Day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붙잡고 싶은 순간일수록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계절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잠시 머물다 가는 법이니까요.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처럼.





# 봄이 깃든 용인



꽃샘추위가 물러난 자리에 따스한 봄별이 내려앉았다. 포근한 바람을 따라 발길이 닿은 곳은 생동감 넘치는 봄의 도시, 용인이다. 화사한 봄꽃 명소부터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곳, 그리고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현장까지. 찬란한 봄의 정취로 가득한 용인의 다채로운 풍경 속으로 떠난다.





©용인시청

**꽃향기에 물들다, 가실벗꽃길**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맘때, 용인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하는 곳은 가실벗꽃길이다. 용인 8경 중 제7경으로 꼽히는 이곳은 도로를 따라 이어진 길에 수많은 왕벚나무가 거대한 꽃터널을 이뤄 봄이면 용인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곳으로 통한다. 그러나 정오만 지나도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건 당연할 터. 호젓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른 아침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바람결을 따라 흩날리는 꽃비는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호수 위로 투영된 분홍빛 잔영은 찰나의 순간을 담으려는 사진가들에게 최고의 앵글이 되어준다.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경쾌해진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자연스레 호암미술관으로 이어진다.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1982년 개관한 이곳은 국보급 고미술

부터 감각적인 현대미술 기획전까지 폭넓은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특히 전통 정원 '희원'과 맞닿은 산책로는 가실벗꽃길의 화려함에 동양적인 단아함을 더한다. 한마디로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찬란한 봄의 정점을 선사한다.

**서로 다른 매력의 식물원에서 봄을 만나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봄을 알리는 두 곳이 있다. 8km 거리에 이웃한 용인자작나무숲과 한택식물원이다. 2024년 문을 연 이른바 '신상'인 용인자작나무숲이 SNS를 통해 세련된 감성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1979년 설립된 한택

식물원은 34개 테마 정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 세월의 깊이를 더한다. 풋풋한 신상 숲과 반세기에 가까운 울창한 숲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두 곳 모두 지금, 가장 밀도 높은 봄의 풍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자작나무숲은 세련된 감성으로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정원 초입의 분수 광장을 지나면 카페 뒤편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인공폭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식물과 소품이 조화를 이룬 온실 화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며, 주말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온실답게 바나나가 탐스럽게 열려 어린 자녀들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이곳의 백미다. 아기자기한 정원과 아득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시름을 잊게 하는 마법 같은 장소다. 전망대 아래에 있는 카페 역시 폭포와 정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사진 맛집으로 통한다.

한편, 1979년 설립된 한택식물원은 식물 수집 기간을 거쳐 1984년 정식 개원했다. 현재 66만㎡ 부지에 34개 테마 정원과 9,7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대 사립 식물원으로 성장

했다. 산림청이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식물원' 중 한 곳인 이곳은 인위적인 변형 대신 계곡과 지형을 그대로 살려 양지와 음지 식물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태계의 공존과 천적 관계를 활용한 친환경 관리로 유명하다. 무당벌레와 개구리, 새가 만들어내는 먹이사슬 속에서 식물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 관람 중에 챙겨볼 것은 호주 온실에 있는 소설 『어린 왕자』 속 바오밥 나무다. 높이 7m, 둘레 3.5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실벗꽃길**

**A**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90-14

**용인자작나무숲**

**A**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황새울로 231

**T** 031-333-8877

**한택식물원**

**A**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

**T** 031-333-3558



시간을 거슬러 봄을 만나다,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에서는 조선의 봄날을 만날 수 있다. 1974년 조성된 이곳은 한때 사극 드라마 촬영의 성지로 꼽힐 만큼 안방극장에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전국에 드라마 세트장이 여러 곳 생기면서 더 이상 드라마 촬영지로써가 아니라 옛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실제 가옥들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봄을 맞아 한국민속촌의 대표 축제인 '웰컴 투 조선'이 한창이다. 사또, 포졸, 꽃거지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마을 곳곳에서 관광객과 소통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이들과 함께 즐기는 마당극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며, 관아나 서당에서 펼쳐지는 즉석 상황극은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한복체험은 기본이고, 옛 방식 그대로 따라 하는 천연염색과 떡메치기 체험을 통해 쫄깃한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보고, 전통 공방에서 장인들의 손길을 구경하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먹거리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장터에서는 가마솥에서 푹 끓여낸 소고기국밥과 노릇하게 구워진 해물파전, 그리고 시원한 동동주 한 잔을 곁들일 수 있다.

최고의 화가가 사랑한 집, 장욱진 가옥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골목에 한옥 한 채가 섬처럼 자리한다. 나이 많은 은행나무가 세월을 짐작케 하는 이곳은 근대문화유산 '장욱진 가옥'이다. 한국적인 선과 색을 서양화에 담아낸 1세대 화가 장욱진 화백은 1986년부터 작고한 1990년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생애 작품의 3분의 1에 달하는 220여 점을 이곳에서 그리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가옥은 한옥 두 동과 양옥 한 동이 공존한다. 1884년에 지어진 초가를 장욱진 화백이 1986년 기와집으로 개축했으며, 화실(사랑채)과 살림집(안채)이 마주 보는 전형적인 경기도 'ㄱ' 자형 한옥이다. 그가 직접 설계해 1989년에 지은 양옥은 현재 전시실로 쓰이고 있으며,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했다. 응접실로 쓰던 별채는 현재 서점과 카페로 운영 중이다. 도심 속 고택에서 화가의 작품을 감상한 뒤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려면 더욱 완벽한 봄 여행이 될 것이다.



한국민속촌

**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T** 031-288-0000

장욱진 가옥

**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9-8  
**T** 031-283-1911

플라이스테이션

**A**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521  
**T** 1855-3946



생동감 넘치는 체험 속으로, 플라이스테이션

정적인 봄나들이에 활력을 한 손가락 더하고 싶다면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장, 플라이스테이션이 제격이다. 거대한 윈드터널 안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오르는 경험은 짜릿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전문 코치의 세심한 지도 아래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날씨 변화가 잦은 봄철,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봄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처음 몸이 붕 떠오르는 순간의 긴장감은 어느새 하늘을 유영하는 자유로움으로 변하고, 온몸을 휘감는 바람은 활기찬 봄을 느끼게 한다. 중력을 거스르는 색다른 체험은 아이들에게는 도전과 용기를, 어른들에게는 짜릿한 일탈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봄,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용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



©플라이스테이션

# 가장 예쁜 봄날에 만나는 꽃길 여행

괜히 걷고 싶고, 괜히 사진 찍고 싶고, 괜히 기분 좋은 요즘.  
봄꽃은 만개했고, 축제는 시작됐다. 봄을 제대로 즐기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다.



##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낙동강의 완만한 물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노란 유채꽃 물결. 창녕에서는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 21회 낙동강 유채축제'가 열린다. 단일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채꽃 단지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강바람을 따라 황금빛 꽃길을 걷다 보면 대지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강변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여유로운 봄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물결과 꽃이 맞닿은 경계에서 일렁이는 노란 풍경은 올봄 가장 눈부신 기억으로 남는다.

- A**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25
- D** 4월 9일~12일



## 피나클랜드 봄꽃 대향연

충남 아산의 대표 수목원 피나클랜드에서는 3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봄꽃 대향연'이 펼쳐진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정원 속에서 수만 송이 꽃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특히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어지는 튤립 시즌에는 정원 전체가 색채로 가득 찬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아산만의 풍경이 펼쳐지고, 정상 의 달빛폭포는 봄의 화사함에 청량함을 더한다.

- A**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월선길 20-22
- D** 3월 21일~6월 21일
- F** 성인 13,000~15,000원 / 청소년 11,000~13,000원



# 봄 꽃 축제

## 여의도 봄꽃 축제

도심 한가운데, 가장 극적인 봄을 만날 수 있는 곳. 4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여의도 봄꽃 축제는 한강을 따라 이어진 벚꽃 터널 속을 걷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낮에는 부드러운 봄빛이, 밤에는 조명 아래 몽환적으로 빛나는 꽃들이 도시의 야경과 어우러져 또 다른 풍경을 만든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더해진 거리 곳곳에서 바쁜 일상도 잠시 멈추게 하는 봄의 절정을 마주하게 된다.

-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운중로 벚꽃길)
- D** 4월 3일~7일



## 황매산 철쭉 군락지

해발 800~900m 고원 지대 위에 보랏빛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장관이 펼쳐진다.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치는 분홍빛 철쭉 물결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하늘과 맞닿은 광활한 초원 위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거친 바람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만의 색을 뽐낸다. 완만하게 이어진 '무장애 나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누구나 쉽게 정상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웅장한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철쭉의 자태는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과 같아 등산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준다.

- A** 경상남도 함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4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풀 하나, 야생화 한 송이를 허투루 보지 않았던 그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 오늘날 자연을 지키는 거대한 식물원이 됐다. 자연스러운 봄 풍경을 만들고 있는 이택주 한택식물원 원장의 이야기다.

# 자연 \_\_\_\_\_ 그대로

# 피어나는 봄 \_\_\_\_\_

이택주 식물박사



### 식물원을 만들겠다는 결심

발밑을 수놓는 아기자기한 별꽃, 섯노란 물결을 이루는 황매화,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수수꽃다리와 심장 모양을 닮은 금낭화까지. 야생화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피어나는 곳, 바로 '한택식물원'이다. 지금은 9,700여 종, 무려 1,000만 본의 식물이 숨 쉬는 거대한 생명의 터전이지만, 이 기적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 이택주 원장의 꿈은 놀랍게도 '식물'이 아니었다. 그의 꿈은 원래 푸른 초원 위에서 소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건설 현장을 누비며 돈을 모아 고향 용인에 땅을 사 초지를 일구고 200

여 마리의 소를 키웠다. 꿈에 다가서는 듯했던 순간, 전국을 휩쓴 '한우 파동'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목장을 조성하면서 산사태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떠난 유럽 배낭여행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국 큐 왕립식물원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의 희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경이롭게 숨 쉬고 있는 식물원이 거대한 지상 낙원 같더라고요."

당시 유엔 가입국 중 식물원이 없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그 순간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귀국 후 그는 소를 키우던 초지에 나무와 자생식물을 하나둘 심기 시작했다.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야생화의 경이로운 생명력에 매료됐다. "어느 순간 식물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시도가 지금의 드넓은 식물원을 만들었다.

### 식물은 환경이 먼저다

한택식물원은 여느 수목원처럼 화려하게 각 잡힌 정원이나 인공적인 조형물이 드물다. 대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숲과 계곡, 바위틈에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이는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든다'라는 이택주 원장의 철칙에서 비롯됐다.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에요. 식물은 그 환경이 맞아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한택식물원은 식물을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를 먼저 설계한 공간이다. 침엽수원, 약용식물원, 덩굴식물원, 비비추원, 모란작약원 등 34개의 테마정원 역시 토양, 습도, 햇빛 등 조건에 맞춰 구성된 '식물들의 맞춤형 집'이다.

식물마다 꽃이 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어떤 꽃은 몇 달 만에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이른 봄을 알리는 복수초 같은 식물은 척박한 땅에서 6년의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노란 꽃을 터뜨린다.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며 식물원을 가꿔왔다.

### 자연 그대로의 봄을 만나는 곳

이택주 원장은 한택식물원의 역할을 '보존'과 '연결'이라고 말한다. "식물종이 다양해야 동물종도 다양해지잖아요." 들꽃 하나가 사라지면 그 식물에 기대어 살던 곤충이 사라지고, 결국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

"식물을 지키는 건 결국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연을 지키는 일이죠.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설악산 계곡에서 만난 복수초, 대관령 숲에서 마주한 야생화의 기억은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방향이었다.

그래서일까. 한택식물원의 봄은 화려하게 꾸며내지 않는다. 대신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화의 시계에 맞춰,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여줄 뿐이다.

"식물은 자연 그대로일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는 이곳을 사람들이 자연을 느끼고 쉬어가는 공간,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래 머물 한택식물원의 봄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한국관광공사



봄바람 살랑이는 피크닉의 계절이 돌아왔다. 돛자리 하나만 덜렁 들고 가기엔 어쩐지 아쉬운 법. 여기에 작은 센스 하나만 더해도 피크닉은 훨씬 근사해진다. 완벽한 봄날을 만들어줄 피크닉 치트키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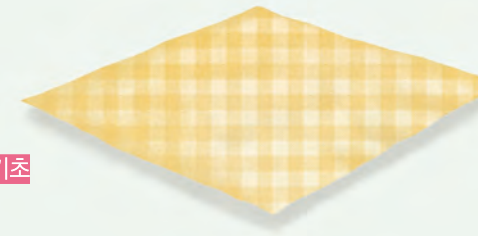
## 센스지수 올려주는 봄 피크닉 아이템



### 공원을 나만의 무대로

#### 블루투스 스피커

풍경 감상도 잠시, 정적을 깰 땐 음악만 한 게 없다.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트는 순간, 평범한 공원이 나만의 작은 공연장이 된다. 만약 조용한 힐링이 필요하다면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챙겨 감성적인 '무소음 피크닉'을 즐겨보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 피크닉의 든든한 기초

#### 돛자리

잔디밭 위에 돛자리를 짜르르 펼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나만의 피크닉 공간이 된다. 돛자리를 고를 때는 바닥의 찌뽀한 습기를 차단해 주는 방수 매트나 오래 앉아도 편안한 쿠션 매트를 추천한다. 만약 짐 챙기기가 번거롭다면 피크닉 세트 대여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바퀴 달린 짐꾼 요정

#### 웨건

피크닉 갈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짐이다. 도시락, 음료, 돛자리,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양손이 금세 무거워진다. 이럴 때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웨건이다. 넉넉한 수납공간 덕분에 피크닉 짐을 한 번에 실어 나르기 좋다. 접이식 구조라 이동과 보관도 간편하다. 평평한 상판을 덮으면 근사한 간이 테이블로도 변신하는 실용성 갑 아이템이다.



### 눅방 부럽지 않은 안락함

#### 캠핑 의자

바닥에만 앉아 있어 엉덩이가 배긴다면 캠핑 의자로 편안함을 더해보자. 폭신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물명, 풀명, 산명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요즘은 컵홀더가 달린 편리한 의자부터 깃털처럼 가벼운 초경량 의자까지 선택지도 다양하다. 특히 경량 의자는 접으면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 어디든 들고 다니기 편해 피크닉이나 야외 나들이에 제격이다.



### 시원함을 철동 보관

#### 보냉백

피크닉의 꽃은 맛있는 음식! 샌드위치와 과일의 신선도를 지키려면 보냉백은 필수다. 내부 단열 소재 덕분에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어두운색보다는 햇빛을 덜 흡수하는 밝은색 보냉백을 골라야 내용물을 훨씬 더 오래 시원하게 지킬 수 있다. 센스 있게 얼음팩도 넣어주자.

### 피크닉 가기 전, 이것만 체크!

#### 1. 그늘이 있는지 확인하기

햇볕이 강한 날에는 그늘이 있는 장소가 훨씬 쾌적하다. 나무가 많은 잔디밭이나 파라솔이 있는 공원을 선택하면 한낮에도 편하게 머물 수 있다.

#### 2. 돛자리 깔기 좋은 잔디인지 확인하기

자갈밭이나 경사진 곳보다 평평한 잔디밭이 좋다. 돛자리나 캠핑 의자를 놓기도 안정적이고, 누워 쉬기에도 편하다.

#### 3. 음식 반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공원마다 음식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음식 반입이 제한되는 장소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Taste Note

글. 최행좌

딸기는 언제나 옳다

# 딸기 젤라토

남다른 한입을 자랑하는 젤라토(Gelato).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을 뜻하며, 우유와 생크림을 베이스로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더해 만든 디저트다. 공기 함량이 적어 쫀득하고 밀도 높은 식감을 자랑하며, 진한 풍미가 오래 남는 것이 특징이다. 젤라토는 과일, 초콜릿, 견과류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돼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크다.

딸기 젤라토는 상큼한 풍미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한입 머금으면 차가운 달콤함과 산뜻한 과일 향이 어우러져 입안을 기분 좋게 채운다. 한 컵에 푸짐하게 담아 먹어도 좋고, 콘 위에 탑처럼 쌓아 올려 먹는 재미도 있다. 먹는 순간 “아, 이거다” 싶은 만족감을 전하며, 젤라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더해줄 딸기 젤라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크림이 빵보다 많으면 합격

# 딸기 생크림빵

디저트 세계에는 하나의 룰이 있다. 크림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 이런 흐름 속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딸기 생크림빵. 폭신하고 부드러운 브리오슈 반을 반으로 가르면 그 사이에 생크림이 가득 들어 있다. 여기에 신선한 생딸기를 듬뿍 넣어 상큼한 맛까지 더했다.

딸기 생크림빵은 구름처럼 부드러운 생크림이 입안 가득 퍼지고, 뒤이어 딸기의 산뜻한 단맛이 올라온다. 빵의 고소함과 크림의 달콤함, 딸기의 상큼함의 밸런스가 꽤 좋다. 무엇보다 비주얼이 압권이다. 빵 사이로 넘칠 듯 채워진 하얀 크림과 빨간 딸기의 조합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마치 작은 케이크를 통째로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딸기 덕분에 봄이 더

## 달콤해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딸기. 상큼한 향, 달콤한 맛,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빨간 색까지. 그래서 딸기는 매년 봄 디저트의 주인공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화사해지는 분홍빛 디저트들. 올봄, 딸기는 이렇게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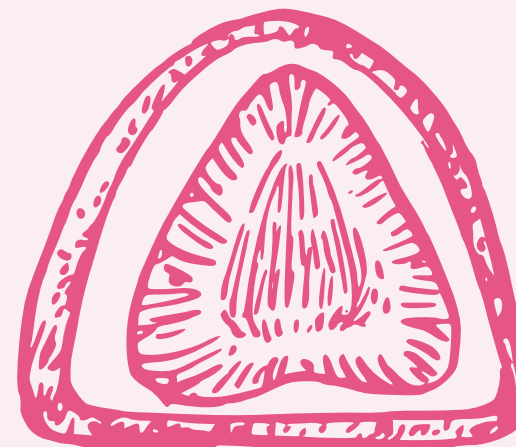


팝콘에도 딸기가 터졌다

# 딸기 팝콘

팝콘 하면 영화관에서 먹는 간식이 떠오르지만, 요즘은 달콤한 디저트로도 즐겨 먹는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메뉴가 딸기 팝콘이다. 딸기 팝콘은 고소한 캐러멜 팝콘에 딸기 시즈닝을 더해 만든 간식으로, 바삭하게 튀겨낸 팝콘에 상큼한 딸기 풍미를 더한다.

딸기 팝콘은 캐러멜의 고소한 단맛과 딸기의 상큼한 향이 번갈아 터지면서 은근 중독적인 맛을 만든다. 게다가 잘게 들어간 딸기 조각이 콕콕 박혀 있어 씹는 재미도 있다. 분홍빛으로 물든 팝콘은 보기만 해도 귀엽다. 가볍게 집어 먹기 좋은 디저트 간식으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는 매력이 있다.



딸기가 쫀득함을 만났을 때

# 딸기 찹쌀떡

요즘 디저트 트렌드의 키워드는 단연 '쫀득함'이다. 말랑하고 쫀득한 느낌이 살아 있는 디저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딸기 찹쌀떡도 그중 하나다. 찹쌀떡 안에 신선한 딸기를 통째로 넣어 만드는데, 쫀득한 떡을 살짝 가르면 새빨간 딸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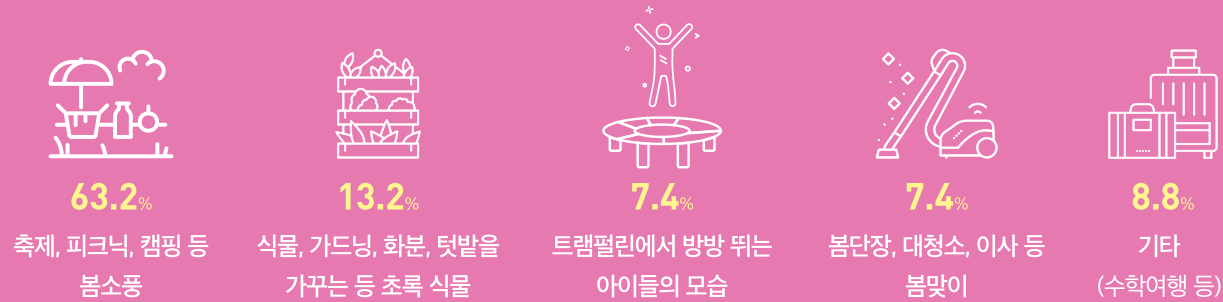
딸기 찹쌀떡은 달콤한 팔랑금이나 부드러운 크림이 딸기를 감싸고 있어 다양한 맛이 겹겹이 퍼진다. 먼저 찹쌀떡의 말랑하고 쫀득한 식감이 입안을 감싸고, 이어 딸기의 상큼한 과즙이 톡 터지며 상쾌한 달콤함을 남긴다. 반으로 가르면 빨간 딸기가 드러나는 '반갈샷(빵을 반으로 갈라 속을 인증하는 사진)도 빼놓지 말 것!

# Spring 처럼 설레는 순간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이맘때 우리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렁임이 번진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피어나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Spring은 어떤 모습일까. 특 하고 튀어 오르는 스프링처럼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을 만나본다.

응답자 수 1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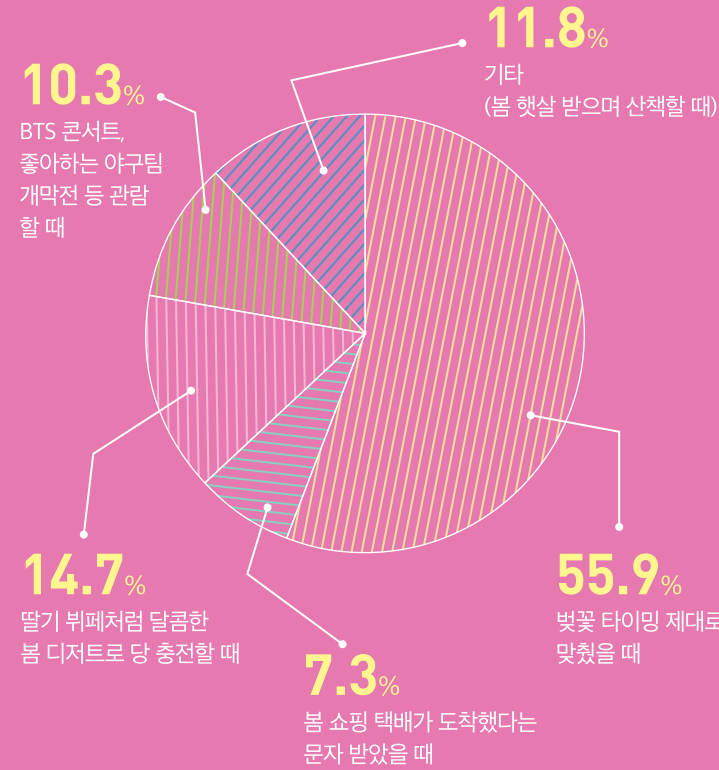
## 'Spring'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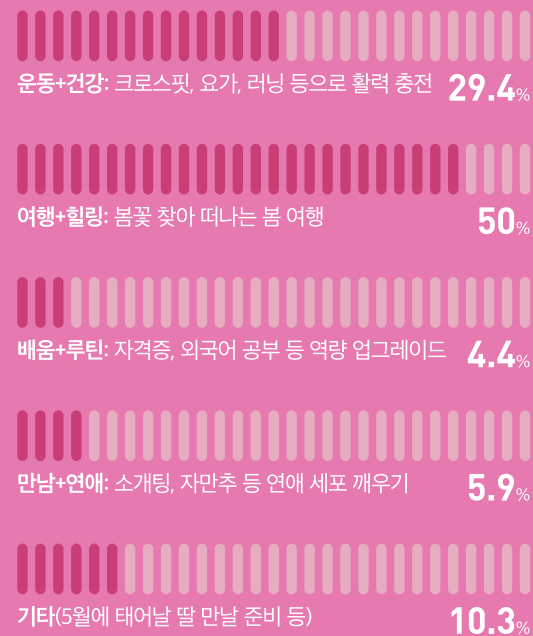
## 봄날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은?



## 스프링(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회사에서 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 올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 내 생애 봄날은 ○○이다

입사 후 첫 승진, 4급에서 3급으로 올라섰을 때 법무실 노진형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입니다. 영·섬경영처 허대호	공사에 입사해서 사택에 딱 들어갔을 때! 광주수도지사 이혜원
2026년 4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기쁘고 설레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봄날이에요. 물함경계획처 은가영	13살 차이 나는 하나뿐인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주수도지사 김완진	2년 전, 지금의 아내에게 고백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손으로 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기후테크혁신처 심지윤
내 인생의 봄은 마당과 텃밭을 가꿀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입니다. 마당을 어떻게 가꿀지,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 생각하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송권지사 임인환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하고 부르며 품에 안겼던 순간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 벅차고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사회조력관리단 이정운	20살,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교정을 거닐 때 찬 바람 속에서도 봄기운이 느껴졌어요. '신입생 환영' 플래카드를 보며 발걸음이 절로 신나던 그때가 제 인생의 봄날 같았습니다. 전남북권지사 이정화

# 망설임 대신 한 걸음, 도약은 그렇게 시작된다

## 왜 우리는 일을 미루게 될까

출근해 컴퓨터를 켜다. 오늘은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료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문서를 열어 놓고 나면 선뜻 첫 문장을 쓰기가 쉽지 않다.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볼까, 밀린 이메일을 먼저 확인할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꽤 지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작을 미루곤 한다. 이러한 현상을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이라고 부른다. 실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약 88%가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일을 미루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의 약 20%가 만성적인

미루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완벽하려다 시작이 늦어질 때

일의 시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완벽주의다. 완벽주의는 흔히 책임감 있고 성실한 성격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행동을 늦추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일을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작은 실수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의 역설’이 있다. 더 잘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시작이 늦어지는 현상이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준비와 고민은 길어지고, 정작 행동은 뒤로 미뤄지기 쉽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자료를 계속 찾다가 정작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더 좋은 표현을 찾느라 슬라이드를 계속 수정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 정리는 뒤로 미뤄지기 쉽다.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행동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작은 행동이 시작을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행동이 생각보다 마음을 더 빠르게 바꾼다는 사실이다. 정신건강 치료에서 널리 활용되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행동 활성화(Behavioral Activation)’라는 접근을 강조한다. 기분이 나아지거나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작은 행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동기와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원리다. 즉 의욕이 생겨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의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으로 집에만 머물며 활동을 줄이게 되면 기분도 더 가라앉기 쉽다. 이때 행동활성화 치료에서는 “하루에 5분만 집 앞을 걸어보자”처럼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도록 권한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활동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기분과 에너지가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원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면 부담이 커지기 쉽다. 대신 문서 파일을 열어 제목을 적거나, 목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참고할 내용을 메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메일을 작성해야 할 때도 완벽한 문장을 고민하기보다 핵심 내용 몇 줄을 먼저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의 문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쉽다.

또 “오늘 안에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부담을 크게 만든다. 이럴 때는 짧은 시간만 집중해 보겠다고 정해 보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잠깐 쉬는 방식은 흔히 ‘뽀모도로 기법(Pomodoro Technique)’으로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부담 대신 “잠깐만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집중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일을 작은 행동으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은 시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진 행동들이 결국 일을 완성하게 만든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일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도약은 작은 시작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가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훨씬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 망설임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든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글을 작성하다가 막힐 때 “완벽한 글을 쓰려 하지 말고 한 문장만 쓰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완벽한 작품을 쓰려 하기보다 한 문장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의미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자. 보고서라면 제목 한 줄, 회의 준비라면 안건 하나, 미뤄 둔 일이라면 단 1분만 손을 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쩌면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잠시 미뤄 두었던 그 일을 지금 단 한 줄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 Talk with

글. 남혜연 마이데일리 기자 사진. 쇼박스 제공



배우 박지훈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묻는다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만났을 때가 아닐까.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을 받은 ‘왕사남’은 역사를 새로운 인식으로 재해석하며 올해 최고의 영화로 회자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배우 박지훈 역시 요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라고 했다. 생애 첫 스크린 주연작인 데다 연기력까지 인정을 받아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청신호를 켜게 된 것. 천만 관객을 울리고 웃게 한 주인공, 배우 박지훈을 만났다.

## ‘단종 오빠’로 연예계 인생의 정점에 오르다

배우 박지훈

### 아이들에서 배우로, 그리고 단종으로

시작은 아역배우였다. 어린 시절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했던 아이는 엄마를 졸라 연기 학원에 다녔고, 7세인 2006년 처음 연기를 시작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연기에 미쳐있었다”라고 할 만큼, 박지훈은 카메라 앞, 대중 앞에서 또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단다. 이후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던 건 춤과 노래였다. 박지훈은 2017년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가수 활동도 시작했다. 아마도 연기를 하는 가수 박지훈은 필연이었을까.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천만 배우 타이틀’이죠. 솔직히 이러한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이나 자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지금은 모든 관객이 우리 영화에 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 그 자체에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총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조선 6대 왕으로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로 유배되어 17세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 단종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국 영화 최초로 전면으로 내세웠다.

박지훈표 단종은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누구보다 처연한

그 눈빛 때문이었다.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한 컷 한 컷 카메라에 담긴 박지훈의 얼굴 표정은 단종이 환생했다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완벽했다.

“사실 처음에는 장항준 감독님께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 연기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라 스크린에 저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됐죠.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감독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네 번째 미팅에선 감독님이 ‘지훈아, 단종은 너여야만 해’라고 얘기해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감독님을 믿고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용기를 냈죠.”

배우 활동 외에도 가수로서도 본격적으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이다. 배우로서 포텐이 터진 지금, 워너원은 7년 만에 재결합, 군 복무 중인 강다니엘과 중국에 머물고 있는 라이관린을 제외한 멤버들은 4월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워너원 고>(가제)를 통해 7년 만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같은 곳을 보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몽글하더라고요. 멤버들끼리 영상 편지를 찍어 라이관린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다 같이 모이니깐 우리가 참 예쁘게 활동했던 예전 일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연기와 노래 모두 좋아하는 만큼, 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 최근 영화 관련 많이 받는 질문이 배우 유해진과의 호환일 것 같아요. 왕과 촌장, 신분을 넘어서는 애뜻한 앙상블이 돋보였어요.**

대본을 읽었을 때 기존 사극과는 다른 모습일 것 같았어요. 단종이 유약하지 않고 강단 있고 영특한 인물로 표현됐어요. 유배지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점점 범의 눈이 되어가는 단종을 보며 '이분은 역시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종이 왕위를 계속 이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촌장, 엄흥도 역의 유해진 선배님과 함께해 영광이었어요. 우선 선배님의 에너지에 매 순간 놀랐고, 그 에너지를 잘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선배님께서 "연기는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걸 잘 지키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덕에 저희 둘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후반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지요.



**🎬 '단종' 역할을 위한 15kg 감량 역시 화제예요.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작품 같아요.**

제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었어요. 근육이 붙을까 봐 기본적인 운동을 포기했고요. 하루 사과 한 조각으로 버티며 두 달 만에 15kg 감량을 했죠. 단순히 야윈 느낌이 아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보였음 했어요. 너무 안 먹다 보니 잠도 안 오더라고요.(웃음) 사실 극 중에서 식사 장면이 많았는데도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 소리 지르는 장면을 찍을 때는 몸에 에너지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 <왕과 사는 남자> 덕분에 '단종 오빠'라는 기분 좋은 별명도 생겼는데요. 처연한 눈빛 연기를 보여준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단종 역할을 잘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그 한 가지 바람으로 연기를 했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별명까지 얻었죠. 그 마음이 관객에게 닿았다고 생각해요. 가수로 활동할 때는 '저장남'으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단종 오빠'라는 애칭도 생기니까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음 작품에서는 또 어떤 수식으로 불릴지 기대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더 많은 수식어를 보유한 '수식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 쏟아진 연기 호평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단종, 박지훈의 눈빛이었어요.**

많은 영화 평을 봤는데 그중 '눈을 보라, 단종이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인 것 같아요. 처음 영화가 개봉했을 때 실제 세조 무덤에 악플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런 관객들의 귀여운 복수에 웃음이 났어요. 또 관객들이 정말 영화를 몰입해서 봐주셨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더욱 감사하고 고마웠죠. 이번 작품 덕분에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가수 박지훈의 모습은 반전이었어요. 무대를 보면 타고난 끼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맞아요. 약간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제 자신도 몰랐던 끼가 있더라고요(웃음). 제 MBTI가 워너원 때는 ENFP였다가 지금은 INFP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제 모습 역시 변하는 것 같아요. 워너원 활동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뎠는데,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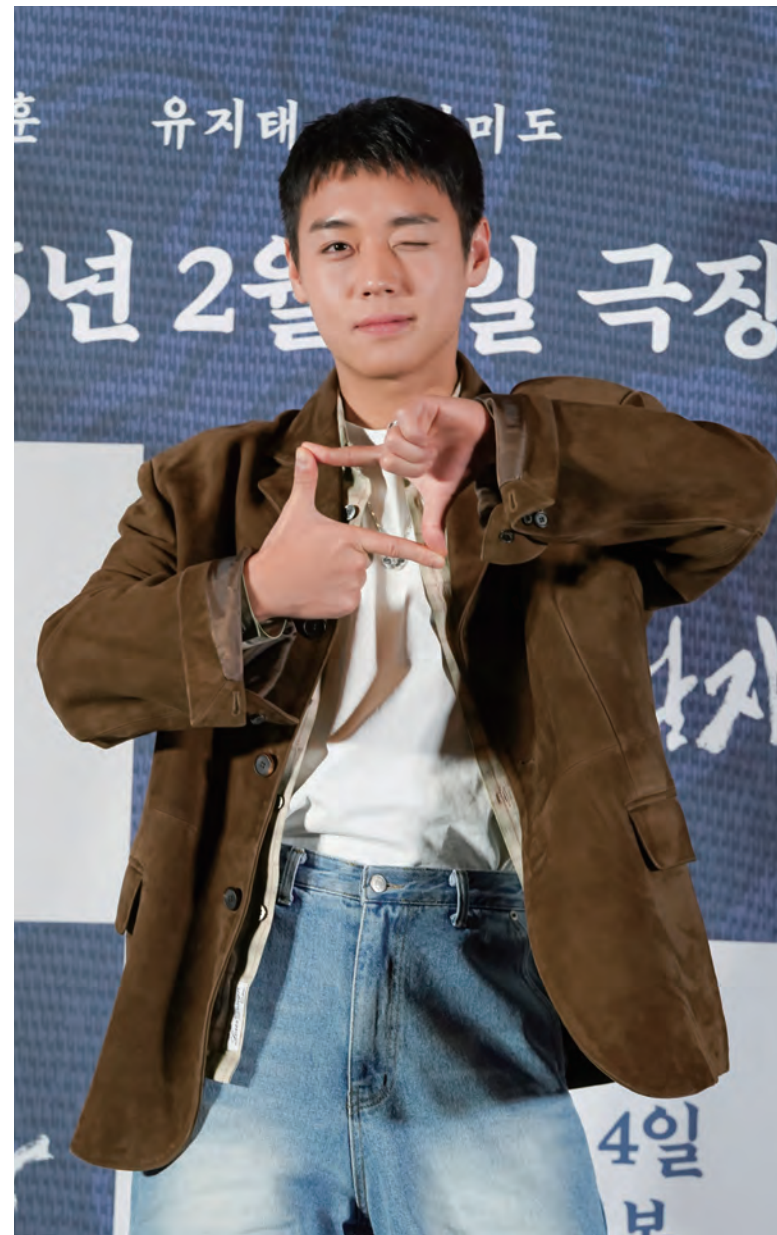


**🎬 2026년 한 해의 시작부터 정말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요. 휴식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작품 활동을 끝내고 나면 리프레시를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 역시 '단종 앳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하게도 배우 활동 외에도 가수 워너원의 멤버로서도 활동을 하게 됐고, 팬 미팅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계획형 인간이 아니라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에 충실한다면 어떤 것이든 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어요.

**🎬 강가에서 홀로 물장난을 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물을 통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나요?**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홀로 유배지에 있던 단종이 물가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민했어요. 잔잔하게 흔들리는 물결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흐름을 지켜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예천의 물은 우리가 지킨다! 예천수도지사



## 물을 책임지는 예천의 수호자들 예천수도지사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온다. 당연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한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예천수도지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물길을 살피며 지역주민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 실 틈 없이 바쁜 그 현장에,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수타벅스가 도착했다.



### 물로 일상을 지키는 예천의 지킴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힘은 무엇보다 크다. 예천수도지사가 바로 그렇다. 지역주민들이 매일 쓰는 수돗물은 모두 이들의 간간한 손길을 거쳐 각 가정으로 향한다.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과 새롭게 합류한 직원들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현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내공. 그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온 '진짜 실력'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 이상의 책임을 다하는 예천수도지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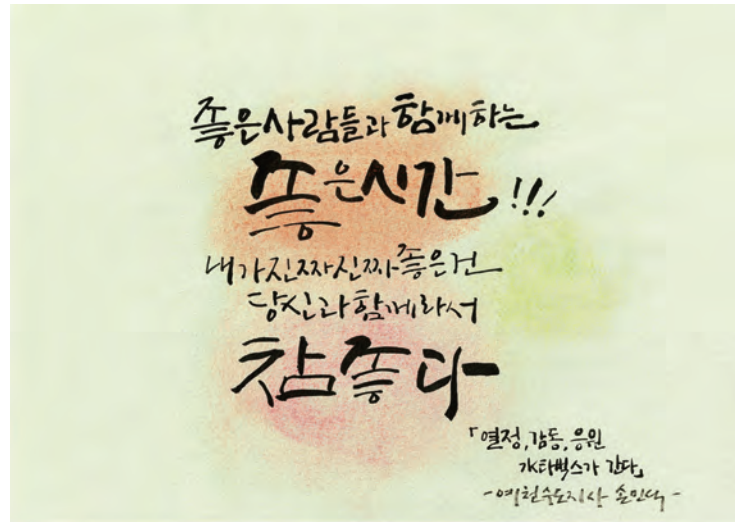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위-수탁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던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2005년 예천군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예천정수장 현대화사업과 2020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거치며 상수도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과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예천수도지사는 오늘도 지역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다.

수타벅스가 간다



물 샐 틈 없는 완벽한 물 관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현장의 촘촘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가정까지 안전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오늘도 ‘혹시 모를 1%의 빈틈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현장을 살핀다. 주목할 만한 건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이다. 상수도 계량기에 통신 장치를 부착해 수도물 사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침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누수 같은 이상 징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의 질 역시 향상됐다. 송인휘 사원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임무예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5가지 주요 수질 항목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수도물 안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는 관리다.



손민석 지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묵묵히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을 ‘BTS’라고 부르는데요. 밝고(B), 따뜻하며(T), 성실한(S)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자랑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해 온 시간들. 그 끈끈한 팀워크가 지금의 단단한 예천수도지사를 만들었다.

예천수도지사에 찾아온 달달한 응원

शल 틈 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예천수도지사가 ‘수타벅스가 간다’의 주인공이 됐다. 예천군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 2주년을 맞아 김태화 대리가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깜짝 사연을 보낸 것이다. 특히 올해 새로 합류해 낯선 업무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응원도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수타벅스 커피차 앞에 줄을 선 직원들 사이로 향긋한 커피 향이 퍼지자, 현장 분위기도 금세 말랑말랑해졌다. 바쁜 업무는 잠시 내려놓고, 달콤한 딸기 샌드위치를 한입 베어 문 순간 모두가 ‘리프레시 모드’로 전환됐다. 이유미 대리는 “생크림 가득한 딸기 샌드위치라니, 기대 이상이에요. 덕분에 제대로 재충전했어요”라며 손하트를 보냈고, 최태욱 사원은 “이런 깜짝 응원을 받으니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잠시나마 웃으며 쉬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봄비가 조용히 내려왔던 그날, 직원들의 마음속에도 기분 좋은 달콤함이 스며들었다. 짧지만 강력했던 이 휴식을 원동력 삼아, 이들은 다시 활기차게 예천의 물길을 지키러 발걸음을 옮겼다.

Mini-Interview



김태화 대리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맘 흘러주시는 직원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은 업무 익히느라 바쁘실 텐데, 수타벅스 이벤트가 잠시나마 비타민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하영 사원

고객 응대를 할 때,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작은 도움일지라도 이런 소통의 과정들이 모여서 더 믿음직한 상수도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손민석 지사장

바쁘고 지치는 순간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 모두가 오늘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예천수도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 공간의 한계를 넘어 자원 연계형으로 진화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AI가 답하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며, 데이터가 쉽 없이 생성된다. 그 거대한 디지털 세계의 중심에는 데이터센터가 있다. 전력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센터는 지금 바다 아래와 땅속, 나아가 우주까지 새로운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 AI시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디지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데이터센터가 존재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모아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공간으로,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CT)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다. 이제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저장시설을 넘어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공장(Digital Factory)’의 역할을 한다.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처리량이 221 ZB(221조 GB)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자율주행, 생성형 AI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 뒤에는 거대한 데이터센터가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고성능 연산 수요가 늘면서 초대형·고(高)집적 시설인 하이퍼스케일(Hyperscale)<sup>1)</sup>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도 폭증하면서,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력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부상 중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구축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위한 서버는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열을 냉각하기 위해 막대한 물이 필요하다. 미국 애리조나처럼 가뭄이 잦은 지역에서는 식수와 농업용수, 데이터센터 용수 사용이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센터는 도심 인근에 있어야 하지만, 소음·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주민 반발이 커지며 센터 건립 지연·철회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새로운 데이터센터의 공간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지상의 한계를 넘어 해저와 지하, 그리고 우주까지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냉각 환경을 확보하고, 재난이나 전쟁 같은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곳은 해저다. 밀폐형 서버를 해저에 설치

1)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연면적 22,500㎡ 이상, 서버 10만 대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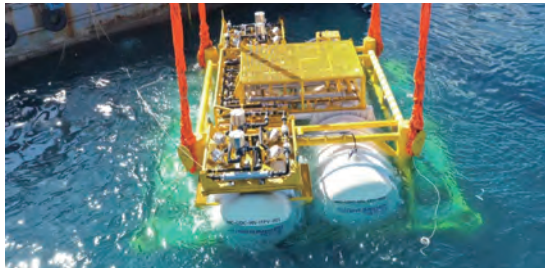


## 해외 데이터센터 사례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나틱 프로젝트(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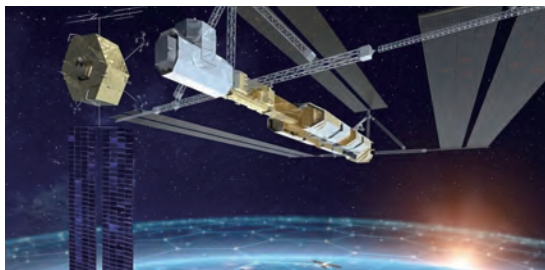
### 중국 하이랜더의 해저 데이터센터(해저)



### 노르웨이 레프달 광산 데이터센터(지하)



### 유럽연합 ASCEND 프로젝트(우주)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랜더, 레프달 광산 데이터센터, Thales Alenia Space

하고, 차가운 해수를 자연 냉매로 활용해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저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전력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진동이나 먼지 같은 지상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지보수가 어렵고, 장비를 인양하는 비용이 높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지하다. 지하는 외부 온도 변화가 적어 서버 냉각에 유리하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테러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 노르웨이는 폐광산을 리모델링해 유럽 최대 규모의 지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미국 미주리주 역시 지하 동굴을 데이터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폐광산이나 지하터널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소음과 전자파, 경관 훼손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는 우주 데이터센터도 등장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10MW급 우주 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일본은 통신사 NTT와 위성사업자 JSAT가 합작해 위성을 서버로 활용하는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 궤도의 극저온 환경을 활용하면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도 서버를 식힐 수 있고, 태양광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다만 발사 비용과 유지보수,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 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 데이터센터, 이제 '자원 따라 이동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초고속·대용량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비수도권 입지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이전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K텔레콤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 해저 30m에 서버 10만 대

##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에너지 공급체계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과 공간 확장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순한 입지 이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냉각수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데이터센터 전략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소양강댐의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열에너지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에너지 사용량은 절감하고, 미세먼지와 CO<sub>2</sub> 배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약 4천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도 기대된다.

이제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서버를 모아 둔 공간이 아니다. 에너지와 물,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강점을 극대화한 맞춤형 클러스터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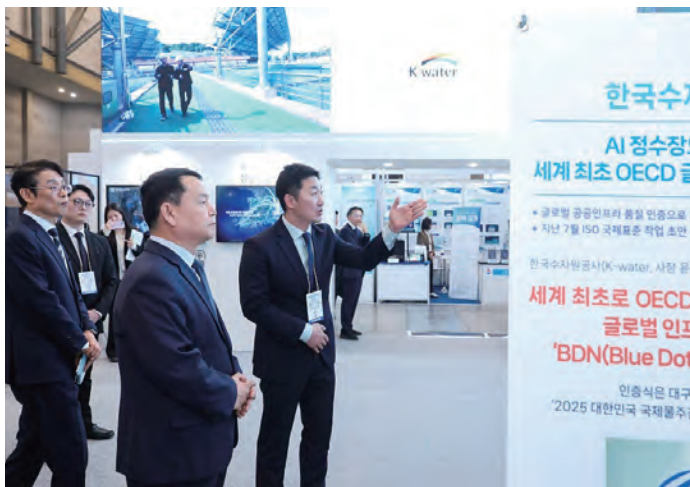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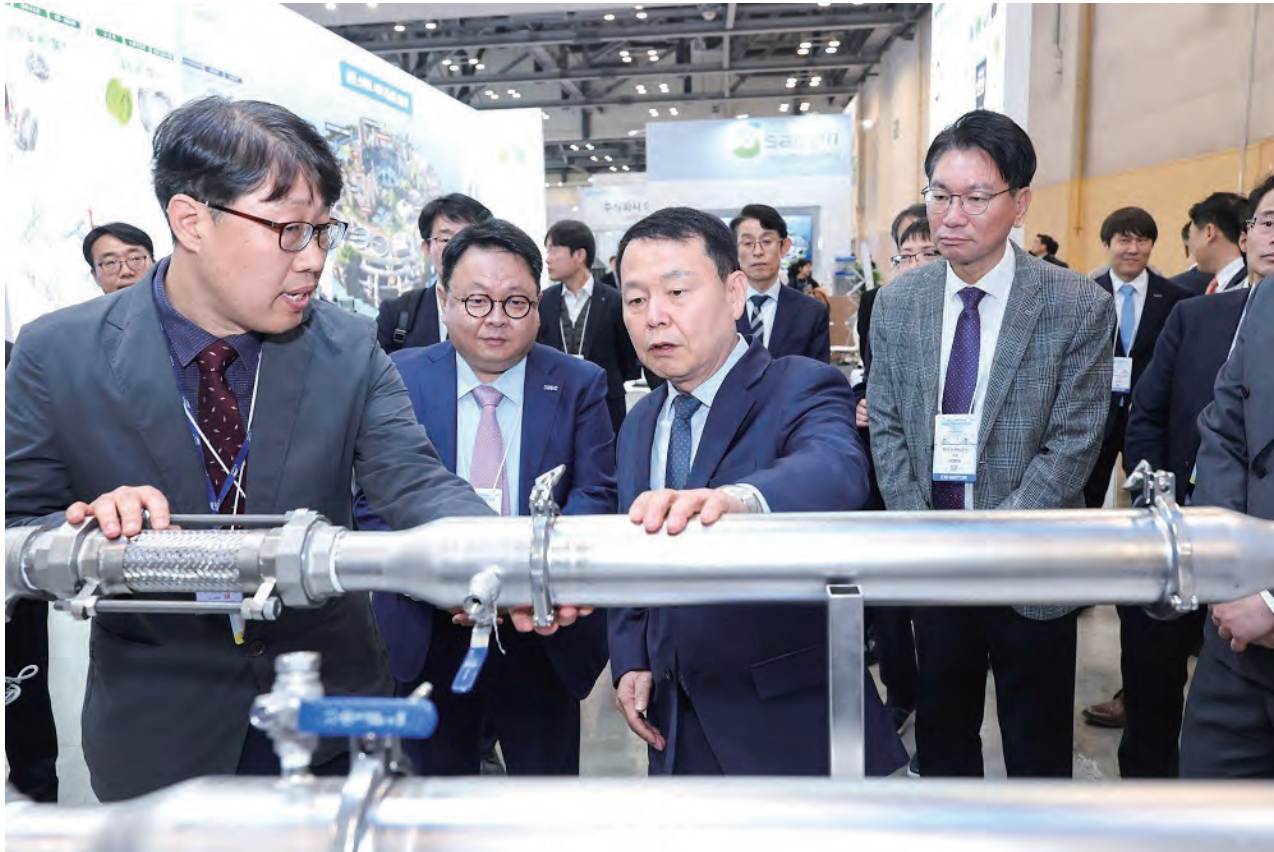


### Water&Tech INSIGHT 카카오톡 채널 안내

K-water연구원에서 발간되는 'Water&Tech INSIGHT'를 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K-water연구원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됩니다.

# AI로 혁신하는 K-물산업의 미래 WATER KOREA 2026



AI 기술이 물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WATER KOREA 2026'에서 AI 기반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K-물관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 상생의 힘으로 만든 K-물산업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WATER KOREA 2026'이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이 박람회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Smart Water Blue Future)'를 주제로 250여 개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산업 박람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에 혁신 물기업 20개사와 함께 참가해 전용 홍보관 'K-water 공동기업관'과 특별 세션에서 AI 기반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월 20일 현장을 방문한 윤석대 사장은 AI 기반 물관리를 중심으로 국내 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기업들과 물산업 활성화와 미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글로벌 무대에서 빛난 K-물관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기업들과 함께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월 CES에 동반 참가한 21개 기업은 합계 약 8,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의를 이끌어냈고, 혁신상 7개사 가운데 1곳은 AI·드론 기반 물관리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어 3월 MWC에도 8개 기업이 함께 참가해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MWC의 대표 시상인 '글로벌 어워즈(GLOMO Awards)'에서 AI·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기술로 수상하며, K-물관리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창업지원부터 기술 실증,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단계별 지원체계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AI 전환(AI)'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한편 국내 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윤석대 사장은 "AI 물관리를 앞세운 K-물산업이 한류의 새바람이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room

2026 April Vol. 697

# 01

##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발표

지난 3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국민 방문 기간 중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현지 기업들과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무적인 협력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 구체화를 위한 현지 행보로,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필리핀 대표 에너지 기업인 퍼스트젠(FirstGen)과 마닐라 북부 지역 양수발전에 대한 공동참여를 직접 합의했다. 최근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국가 전력망 안정화의 핵심 수단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양 기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마닐라 서부에서 추진 중인 파사이(Pasay) 360 스마트시티 개발 주체인 현지 기업 에스엠 프라임(SM Prime)과는 도시 성장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맞춰 마닐라의 수원 다변화를 위해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개발 및 상하수도 사업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총사업비 1조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내 물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02

## AI 물관리로 MWC 에서 ‘글로벌 어워즈’ 수상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물관리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공사는 지난 1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이어 이번 MWC에서 AI 물관리 기술을 글로벌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로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물관리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AI-디지털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 확대에 나섰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 혁신 기술 중 단 30개 분야에만 수여되는 세계적 권위의 상 ‘글로벌 어워즈(GLOMO Awards)’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은 이번 MWC에서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구글(Google), 메타(Meta), 아이비엠(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미래 협력을 논의하며 파트너십의 범위를 넓혔으며, MWC 주관사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를 비롯해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수자원클러스터(CWP), 연구개발 기관 유레카트(Eurec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 03 '모·자회사 노사공동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지난 3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 및 케이워터기술주식회사와 함께 '노동환경 변화의 시대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희망찬 미래로'를 구호로 내걸고 '모·자회사 노사공동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윤석대 사장과 박기찬 위원장을 비롯해 자회사 경영진 및 노조 대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시설관리·점검정비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최초의 노사 공동 상생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조직 내 신뢰 자산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 04 '기후에너지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지난 3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실대학교와 '기후에너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교육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스쿨 교육과정 참여,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교과과정 개설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 교육에 선발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최신 에너지 경제·경영·정책과 기술 동향을 학습하고 이를 현장의 물 에너지 인프라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접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교육 협력을 통해 확보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물 기반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에도 집중해 RE100 이행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지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 05 'CDP 물안보 특별상' 수상

지난 3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6 CDP 코리아 콘퍼런스'에서 물안보(Water Security) 분야 특별상(공로상)을 수상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글로벌 비영리 기구로, 국내에서는 CDP 한국위원회가 2011년부터 매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및 산업 수요 증가로 물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CDP 한국위원회는 물안보 분야 특별상을 신설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관·공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의 실질적 ESG 활동 참여 확대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확산을 추진하며 국가 물안보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특별상의 첫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공사만의 축적된 물관리 경험에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기업의 대응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06 '제95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본격화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데벤드라 쿠마르 샤르마 국제대담회(ICOLD) 총재를 비롯해 테초야 수미 부총재, 프레데릭 코레제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진이 2027년 '제95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개최지인 대전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주 행사장인 대전컨벤션센터(DCC)를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대청댐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둘러보며 한국의 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3월 19일에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윤석대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인공지능(AI) 활용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확대를 제안하며 국제대담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95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는 70여 개국 1,6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 기술 콘퍼런스로, 2004년 서울 개최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Water Lounge**

글. 최행좌 사진. 박갑순



# 바닷길이 열리는 봄 진도 신비의 바닷길

봄이 되면 진도의 바다에서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진다. 푸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섬과 섬을 잇는 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잠시 열린 길 위로 사람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간다. 마치 자연이 허락한 단 한 번의 산책 처럼. 그래서 이곳은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린다.



**바다가 잠시 열어진 길**

진도는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이곳은 봄이면 바다가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데 이름 그대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다. 진도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약 2km 바다에서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빠지는 시기가 되면 바닷길이 드러난다. 평소에는 깊은 바다이던 곳이 어느 순간 폭 30~40m의 길로 변해 섬과 섬을 잇는다.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간은 약 1시간 남짓. 짧은 순간이지만 그 특별한 풍경을 보기 위해 매년 수많은 여행자가 진도를 찾는다. 바다 위에 드러난 길을 따라 걸으며 조개도 줍고, 사진도 찍으며 이색적인 시간을 즐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1975년이다.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였던 피에르 란디가 진도를 방문했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고, 프랑스 신문에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다.

**전설이 된 한 사람의 기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에는 오래된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회동마을에 살았다는 뽕할머니 이야기다. 옛날 이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사람들은 급히 바다 건너 모도라는 섬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뽕할머니는 미처 떠나지 못하고 홀로 마을에 남게 된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뽕할머니는 밤낮으로 용왕님께 기도를 올렸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용왕님이 나타나 "내일 바다 위에 무지개 길을 내려줄 테니 그 길로 건너가거라"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뽕할머니가 바닷가에 나가 기도를 올리자 놀랍게도 바다 위에 길이 나타났다. 마치 무지개처럼 이어진 길을 따라 뽕할머니는 모도로 건너갈 수 있었다. 가족을 다시 만난 뽕할머니는 "나의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말한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뽕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바닷길을 열었다고 믿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이름도 호동(虎洞)에서 회동(回洞)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입구에는 모도를 바라보고 서 있는 뽕할머니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 그 조형물 너머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면 마치 오래된 전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바닷길 위에서 만나는 진도의 봄**

이 전설의 현장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바닷길 위에서는 바지락과 낙지를 잡는 체험이 펼쳐지고, 진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공연도 이어진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진도복놀이 등 남도의 전통 예술이 펼쳐지며 축제의 흥을 더한다.

인근에 위치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에도 들러보자. 이곳에서는 바닷길이 열리는 과학적 원리와 뽕할머니 전설, 축제 이야기를 전시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 여행하는 재미가 한층 더 깊어진다.

그리고 올봄에는 바다가 길을 내어주는 단 한 시간.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직접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바람이 스치는 바닷길 위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신비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A**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 D** 4월 17일~20일
- T** 061-540-3410

# 당신의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김사무엘  
머니투데이 기자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지난 6년여간 증권부 기자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자본시장 취재 경력은 길지 않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 시기 등을 거치며 한 번의 급등장과 두 번의 큰 조정을 경험했다. 평소엔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지금 사야 하는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등을 물어본다. 주변에 주식으로 돈깨나 벌었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에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다. 오랜 조정을 마치고 코스피 지수는 5000을 넘어 한때 6000을 넘어서기도 했다. 불과 1년 만에 3배가 오르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금리 인상기 주가 하락으로 뼈아픈 손실을 경험해야 했던 동학개미들은 한동안 주식을 멀리하다 지금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 지금 사야 하나요 말이다.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해 준다. “사세요. 그리고 팔지 말고 갖고 계세요.”

지금 사야 하나요는 질문은 투자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에서 비롯된다. 투자를 가치가 아닌 타이밍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타이밍을 생각한다. 주식시장 격언처럼 누구나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로 팔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자자 그 누구도 시장의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알지 못한다. 바닥 밑에는 언제나 지하가 있고 상단은 열려 있는 것이 주식이다.

기자가 시장의 급등장과 하락장을 경험하고 수많은 자산가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은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언제 오르고 내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와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들어갈 때가 하필 꼭지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언제나 최악의 타이밍에만 투자하는 미국인 존 아저씨 이야기다.

매월 월급의 30%씩을 착실하게 모은 존은 1980년대 주식시장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결심한다. 1987년 8월 그동안 모은 전 재산 1만 2,000달러(여기서 전 재산은 시기별 미국 근로자 평균 연봉의 30%를 모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를 S&P500 펀드에 넣었지만 그 직후 블랙먼데이 사태가 터지며 지수는 고점 대비 35% 급락했다.

존의 두 번째 투자는 2000년 3월 닷컴버블이었다. 또다시 그동안 모은 전 재산 9만 달러를 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주가는 50% 폭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10월에는 전 재산 8만 7,000달러,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에는 전 재산 17만 2,800달러를 펀드에 넣었다. 금리인상기 전 고점이던 2021년 12월 3만 3,900달러를 투자한 것이 그의 마지막 투자다.

존은 40여 년간 평생에 걸쳐 단 5번만 투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증시는 폭락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넘게 추락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2026년 3월 현재 그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그의 주식 자산은 136만 9,000달러(20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은 246%를 기록했다. 매번 고점마다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팔지 않고 보유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존을 김철수 씨로 대체해도 비슷한 수익률이 나타난다. IMF,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고점일 때만 코스피 펀드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걸 가정해도 현재 철수의 자산은 원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8억 3,000만 원이 된다.

만약 존과 철수가 고점에만 투자하지 않고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매달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았다면 수익률은 배가 된다. 우리가 타이밍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다. 코스피 6000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고점을 걱정하며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부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주식은 가치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 황하를 다스리는 물의 신 하백



중국 황하를 따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강을 여행하던 물의 신, 하백이다. 자유로운 방랑자였던 그는 뜻밖의 사건을 겪으며 결국 강을 지키는 존재로 변해간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황하의 전설이 되었다.

## 강의 신이 바다를 만났을 때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해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드는 황하(黄河). 중국 고대문명의 발상지로, 중국인들이 ‘어머니 강’이라 부르는 강이다. 이렇게 거대한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중국 신화에는 바로 그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름은 하백(河伯). 풍이(馮夷), 빙이(冰夷)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흥미로운 건 하백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그는 바로 주몽의 외할아버지로 나온다. 다만 중국 신화 속 하백과는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으로 여겨진다.

중국 신화 속 하백은 강 아래 궁전에 살며 강과 하천을 다스리는 수신(水神)이었다. 비바람을 일으키고, 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힘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말하자면 강을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의외로 그는 자유로운 성격의 신이었다. 호기심이 많아 가만히 머무르는 법이 없었다. “강이 흐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강물처럼 흐르며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강을 따라가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마주하게 된다. 그동안 황하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이라 생각해왔던 하백은 그 광경에 깜짝 놀란다. 그때 바다를 다스리는 신, 약(若)이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는 법이지”라고 말했다.

『장자』에 나오는 ‘정와불가어해(井蛙不可以語海)’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좁은 세계에 갇혀 있으면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백은 그날 처음으로 세상의 크기를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 강으로 다시 돌아오다

하백은 여행 말고도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화려함이다. 그의 행차는 언제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마리의 용이 끄는 연꽃 장식 수레를 타고 강 위를 순행했기 때문이다. 물 위를 떠다니는 화려한 수레가 나타나면 강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그는 재물도 좋아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물을 요구하며 제사를 받곤 했다. 강이 넘칠까 두려웠던 사람들은 곡식과 재물을 바치며 “하백님, 강을 잠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공물 요구가 지나치자 사람들의 원성이 커졌다. 이 일로 아내 복비와도 갈등이 생겼고, 결국 명궁예(羿)가 쏜 화살에 하백은 왼쪽 눈을 잃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하백은 예전과 달라졌다. 강을 따라 세상을 떠돌던 방랑의 신은 고향 근처에 별궁을 짓고 조용히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강물처럼 흐르던 신도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강으로 돌아온 셈이다. 어쩌면 그 여정 속에서 하백은 세상의 넓이를 배우고, 또 한 번 스스로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양광은 왜 댐으로 갔을까?**  
수면 위 푸른 광산, 수상 태양광

**유튜브**  
수상태양광은 왜 댐으로 갔을까?  
수면 위에 뜬 푸른 광산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26 전국 벚꽃 명소 추천

**블로그**  
벚꽃 명소는 어디?  
전국 벚꽃 명소 추천

#전국 #벚꽃명소 #경북금  
#대릉원 #여좌천




**X(트위터)**  
봄맞이 대청소 하는 날!  
물건 버린다 VS 못 버린다

#대청소 #봄맞이 #추억 #정리



K-미식여행, 로컬 한상, 춘천

**페이스북**  
K-미식여행, 로컬 한상, 춘천

#미식여행 #특산물 #로컬한상  
#춘천맛집 #춘천로컬



음식 사진에 와앙 방울이 심기

**인스타그램**  
음식 사진에 와앙 방울이를 심어 봐!

#방울이 #음식사진 #음식먹방  
#방울이 심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 4월호 이벤트 안내

## EVENT 1



###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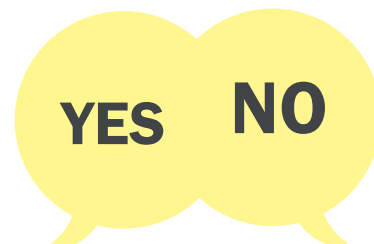
4월호 사보 또는 웹진, 블로그를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 접수 마감일: 4월 20일
- 선물 발송일: 4월 30일



참여하기

## EVENT 2



### 물맛은 물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물맛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물 입자가 작을수록 물맛이 부드럽고 체내 흡수가 잘되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 STEP 1: 블로그 방문하기
- STEP 2: 이벤트 게시물에 비밀 댓글로 참여하기
- STEP 3: 정답, 이름, 휴대폰번호 작성하면 참여 완료!
-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 접수 마감일: 4월 25일
- 선물 발송일: 4월 30일



블로그 바로가기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3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아(5892)

완벽함을 강요하는 물입보다, 나만의 속도에 맞춰 걸을 내어주는 '리워드 콘텐츠'의 유연함이 참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정답 없는 세상 속에서 나를 찾기 위해 가볍게 '찍먹'하며 일상을 채워가는 Z세대의 영리한 낭만을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김○현(1674)

호주와 솔로몬제도 사례를 통해 수자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와 수자원의 체계적인 배분 이야말로 국민 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형(6147)

지역과 마음을 잇는 상생의 장터에 참여해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보를 통해 그때의 좋은 기억이 떠올라 더욱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선(2883)

국내 주상절리는 대부분 방문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경주 양남 주상절리를 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담은 메인 사진 덕분에 현장의 생생함이 더욱 잘 전해졌습니다.



최○현(1177)

최근 『토지』를 다시 읽고 있어 더욱 관심이 갔던 기사였습니다. 울분 뱃꽃이 필 무렵 하동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화계장터에서 불나물을 사고, 심리벗꽃길을 걸으며 하동녹차 한 잔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 이벤트 당첨자 발표 #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물을 끓여도 영양분이 그대로라는데,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YES!**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지만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반면 미네랄 성분은 끓여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 |           |           |           |           |
|-----------|-----------|-----------|-----------|
| 김○은(2116) | 오○영(3170) | 이○원(5489) | 정○빈(1130) |
| 박○선(2313) | 윤○경(9928) | 장○기(2810) |           |
| 배○순(7262) | 이○현(0301) | 정○희(6295) |           |

##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카드지갑 5명

- 길○영(0685)  
김○름(8318)  
김○연(1259)  
이○정(2580)  
추○진(0927)

#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방울이 카드지갑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4월 20일  
선물 발송 4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방울이 카드지갑  
(5명)



※ 4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

##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2026년 4월 20일 (월) ~ 4월 25일 (토)  
여수 엑스포 일원

